

공간, 건축의 팩션(Faction)

김도균의 사진에는 실제로 있을 것 같지 않은, 만들어 낸 듯한 건축물들이 등장한다. 대상을 화면에 고정시키는 사진이라는 점에서 이 건물들은 분명 실재하여야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합성이나 연출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만들어낸다. 실재이지만 초현실적인, 인공적인 김도균의 사진 속 건물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건물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만들어 낸다. 김도균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단서를 이미 작품제목에서 제시한다. 일련의 암호와 같아서, 작품 속 이미지와의 관계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작품 제목은 각 시리즈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의 약자와 촬영한 장소, 번호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적은 것이다. 리움미술관을 찍은 SF. Sel-11은 sf 시리즈 중 서울에서 촬영한 11번째 작품이라는 말이다. 시리즈를 구분하는 제목의 첫 부분인 ‘A’, ‘F’, ‘SF’, ‘W’도 초현실적 이미지에 비하면 한 시리즈를 아우르는 작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담고 있다.

김도균의 비교적 초기작품들이라 할 수 있는 ‘A’와 ‘F’는 각각 Artificial(인공적인)/Abend(밤), Façade(정면)/Farbe(색)의 약자이다. A시리즈에서는 가로등이나 별빛 하나 없는 암흑의 밤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건물들이 발산하는 빛을 장시간 노출을 통해 담아내어, 실제 할 것 같지 않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을 포착했다. F시리즈는 색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의 정면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초기 시리즈들에서 공통적으로 건물과 건물들이 갖고 있는 쪽 뿐 아니라 직선, 그리고 색에 대한 김도균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가 독일로 유학을 떠나 처음 시작했던 또 다른 A시리즈(Autobahn, 아우토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작품인 SF나 W, 그리고 최근의 LU 시리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김도균은 현대사진에서, 그리고 독일사진에서 신즉물주의 사진, 혹은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이야기되는 뒤셀도르프 학파은 본고장인 뒤셀도르프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 유학 초기에 그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풍경을 찍었다. 이 작품들은 빠른 속도로 인해 흔적만 남은 근경과 속도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한 원경의 대비를 보여주며, 곡선 위주인 우리나라의 풍경과 대비되는 독일의 직선적 풍경을 담고 있다. 이 직선들은 김도균이 오랜 동안 흥미를 갖고 있던 건축물의 구조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가 다루는 건축물이라는 소재 때문에 혹은 독일에서의 유학으로 인해 그의 작업은 독일의 유형학적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적 구조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록인 독일 유형학적 사진과는 달리 김도균이 건축물을 다루는 방식과 그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관심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냉정하고 객관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이다.

SF시리즈와 W시리즈는 앞선 두 시리즈의 연장선 상에서 좀 더 이러한 작가적 관심사를 찾아볼 수 있다. SF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Science Fiction(공상과학소설)과 (건축적) 공간(Space)과 팩션(Faction)을 의미하며, W는 Wall(벽)/White(흰색)을 의미한다.

SF시리즈는 A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다른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내외부에서 발산하는 빛을 이용하여 주로 장시간 노출을 통해 건물들을 촬영한 사진이다. 말하자면 SF는 A로 부터 시작하여 건물을 바라보는 김도균 자신의 관심과 시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형카메라로 촬영한 건물 사진에 약간의 디지털 보정작업이 가미된 초현실적 건물로 나타난다. 어두운 밤과 강렬하게 대조되는 밝은 색채의 건물들은 냉정하고 차갑게 비춰질 지도 모르지만, 그가 대상(찍혀지는 건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먼 미래에 이러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이며, 또한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조형적 아름다움에 의해서이다.

어찌 보면 현실과 사회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단순한 건물 외형의 기록으로 보일 수 있으나, 김도균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물의 모습의 자본주의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과 발전지향적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찾아낸 하나, 혹은 다수의 건물들을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면서 그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고, 디지털 작업을 통해 그가 찾은 공간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공간의 일

부분을 덧씌운다. 이 사진들이 갖는 진정성은 건축과 미술을 아우르는 시각예술에서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인 선과 면, 색채의 조형성에 대한 강조이면서 동시에 현재 공간의 초현실적 모습을 통해 미래의 공간을 생각해 보는 시간성에 있다.

W시리즈들 역시 선과 면,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환영효과에 대한 작업이다. 세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움푹 들어간 Y자 형태의 공간이 오히려 튀어나와 보였던 그의 경험에서 이 작업은 시작되었다. 언뜻 보기에 마치 연필 소묘나 회화인 듯한 W시리즈는 희미하게 보이는 갈라진 틈, 작은 거미, 벽지나 벽돌 등과 같이 요소들로 실제 공간임을 다시금 인식시킨다. 이는 점, 선, 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들에 대한 김도균의 오랜 관심을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동시에 깊이와 빛에 따른 벽면 색채의 변화는 단조로운 흰색 공간에 감성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항구 화물 터미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찍은 새로운 LU(Line Up)시리즈들에서 김도균은 공간의 발견을 넘어 스스로 공간을 구성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우연히 항구에서 본 동일한 규격과 다양한 색상의 수많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그의 눈에는 신세계로 보였다고 한다. 아마 그에게 컨테이너 박스는 점이나 선과 같은 단일한 구성요소이며, 이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들은 이전에 그가 찍었던 건축물들과 동일한 조형성을 갖춘 하나의 건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이 컨테이너들이 갖는 색채와 형태, 쌓인 방식의 조합을 마치 건물을 찍듯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SF에서 현재의 건물을 보며 미래의 시간을 상상했던 것처럼, LU에서는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블록을 쌓듯 자유자재로 조합하여 컨테이너 박스의 한 면을 하나의 점과 같이 쌓아 올리면서 형태와 색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도균이 A, F, SF, W, LU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은 건물과 공간이 갖는 조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발견된 건물이 본래 갖고 있는 선과 색에서 시작하여 부분적인 삭제와 합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공간을 재발견하는 그의 작업은 실제 존재하는 건물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로부터 유추하는 미래라는 시간을 덧씌우고,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작은 점과 같이 자유자재로 옮겨보는 소인국 놀이는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한 일종의 팩션(faction)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각성과 감수성에 유쾌한 자극을 준다.